

11/2(화) 욱기 묵상 14

욱기 7:7-21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의 변론을 듣고 욱은 먼저 엘리바스를 향하여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욱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욱의 간청

욱기 3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욱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욱은 그의 두 번째 변론에서 또다시 인생의 허무함을 탄식합니다(7절,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러한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내용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많이 고백했던 주제입니다(전 1:14,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신에게 다시는 행복이 찾아올 수 없을 것 같다고 고백한 것은 욱에게 찾아온 고난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지만, 7절, “바람”과 9절, “구름”의 비유를 통해 ‘인생이 짧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짧고 허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

욱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욱이 고통하는 것은 단지 그의 외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욱의 생각에 그는 하나님께 이같은 감찰을 받을 만한 ‘바다와 바다의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12절,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니이까.”**). 하지만 괴로운 것은 욱의 고난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13-14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처럼 욱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욱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호소합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차라리 놓아 달라는 간구도 하게 됩니다(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 것이니이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감찰하고 있다는 표현이자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감찰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욱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같은 고난을 그에게 허용하시는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 욱의 생각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관심하셨다면 그가 이같은 고난을 겪지 않았겠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18-19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하지만 욥은 그의 말처럼 하나님의 감찰이 부담스럽지만 극심한 고통 중에도 그는 자살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욥이 고난 중에서도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친구들의 말처럼 그의 고난이 만약 죄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20-21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흠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하지만 욥은 분명 기억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최소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욥의 신앙을 엿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감찰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의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음의 안정 뿐만 아니라 영적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빌 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영적 두려움이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욥의 고백처럼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의인으로 삼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지만 죄인으로서 여전히 부족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욥과 같이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모두 우리의 죄와 행위로 연관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분 앞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의 도우심과 뜻을 구하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 현재 인도에는 28개의 주(State)와 8개의 연방 직할지(Union territories)가 있는데, 이 중 9개 주에서 이미 개종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인도에서 확산되고 있는 주 정부의 개종 금지법 제정이 중지되어, 소수 종교인 기독교인들이 안전하게 신앙 생활하며 전도의 자유가 확보되도록 기도하자.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웨더스필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가나의 Ghana Maternity Ward Partnership를 위해서 중보합니다.